

22회 서울인권영화제 <불온하라, 세상을 바꿀 때까지> 22th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일시 : 2017년 6월 1일 ~ 6월 4일
장소 : 마로니에공원 / 다목적홀

22회 서울인권영화제 <불온하라, 세상을 바꿀 때까지> 슬로건 해제

세상은 나를 '오류'라 한다.

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을 때
세상은 나에게 이기적이라고 했다.
내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
세상은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
내가 그 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세상은 나에게 지겹다고 했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게 말한다.
“가만히 있으라.”

아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차라리 불온해지겠다.

내 존재를 반대하는 세상에서, 오롯이 나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이기적이고, 요란하게, 지켜온 이야기들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나는 광장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나는
삶이 깃든 공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당신을 만나고
없는 존재로 살지 않겠다는 당신을 만났다.
그런 당신을 세상은 역시 불온한 존재로 호명했지만

불온한 나는 그렇게 불온한 당신과 만나
불온한 연대를 시작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불온해지겠노라고 우리는 다짐했다.

'나'로 살 수 없는 수많은 삶들을 위해
우리는 다시 광장으로 나간다.
승리에 완성은 없기에
나와 당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불온하라, 세상을 바꿀 때까지.

[상영일정표]

*** 언어 표기 Language/Subtitle**

장애인접근권을 위해 모든 상영작에 한글자막이 있습니다.
All films are subtitled in Korean for disability access.

KSL 수화통역이 삽입된 영상 Korea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ncluded
DVS 화면해설이 삽입된 영상 Descriptive Video Service included

- 한국어 대사 Korean Dialogue
- ▲ 영어 대사 English Dialogue
- 아랍어 대사 Arabic Dialogue
- ◆ 포르투갈어 대사 Portuguese Dialogue
- ★ 비-한국어/영어/아랍어/포르투갈어 대사 Non-Korean/English/Arabic/Portuguese Dialogue
- △ 영어 자막 English Subtitle

TA 관객과의 대화 Talk with Audience

TP 광장에서 말하다 Talk in Plaza

*상영 일정과 프로그램 일정은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 마로니에 공원**

14:30 플레이온 Play On | 83분 | ● KSL | TA

16:30 안녕 히어로 Goodbye My Hero | 107분 | ● | TA

19:00 개막식 | 50분

19:50 박근혜정권퇴진행동 옴니버스 프로젝트 ‘광장’ Candle in the Wave | 111분 | ● KSL | TA

*** 지하 다목적홀**

16:00 시장이 있던 자리 The Free Market | 53분 | ★ △ KSL

17:10 블랙 코드 Black Code | 89분 | ▲ ■ ◆ ★ △ KSL

[6월 2일 금요일]

*** 마로니에 공원**

13:30 가장 값싼 군인을 삽니다 Child Soldier's New Job | 69분 | ▲ △ KSL | TA

15:20 호스트 네이션 Host Nation | 91분 | ● ★ KSL | TA

17:30 올 리브 올리브 All live olive | 92분 | ■ KSL | TA

19:40 이태원 Itaewon | 98분 | ● ▲ KSL | TA

*** 지하 다목적홀**

14:00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Best and Most Beautiful Things | 92분 | ▲ KSL
16:00 후쿠시마에 남다 Half-Life in Fukushima | 61분 | ★ KSL | TA
17:40 친밀한 폭력 Intimate Battles | 87분 | ▲ ★ △ KSL
19:30 기억의 장 A Memory in Three Acts | 65분 | ◆ ★ △ KSL
21:00 섹스, 설교 그리고 정치 Sex, Sermons and Politics | 71분 | ◆ △ KSL

[6월 3일 토요일]

* 마로니에 공원

11:00 나의 탈출 My Escape | 53분 | ▲ ■ △ KSL | TA
11:50 피난 Diaspora | 22분 | ● KSL DVS | TA
12:50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Best and Most Beautiful Things | 92분 | ▲ KSL | TA
14:20 있는 존재 Being | 17분 | ● KSL DVS | TA
15:30 친밀한 폭력 Intimate Battles | 87분 | ▲ ★ △ KSL | TP
17:00 씨씨에게 자유를! Free CeCe! | 87분 | ▲ KSL | TP
20:00 시장이 있던 자리 The Free Market | 53분 | ★ △ KSL | TA
20:50 우리는 오늘도 Again Today | 60분 | ● KSL DVS | TA

* 지하 다목적홀

12:00 기다림 The Wait | 59분 | ★ △ KSL
13:20 가장 값싼 군인을 삽니다 Child Soldier's New Job | 69분 | ▲ △ KSL
14:50 문 밖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 We'll Be Alright | 78분 | ★ KSL
16:30 기억의 장 A Memory in Three Acts | 65분 | ◆ ★ △ KSL | TA
18:30 망각과 기억2: 돌아 봄 Forgetting and Remembering 2 : reflection | 198분 | ● KSL | TA

[6월 4일 일요일]

* 마로니에 공원

11:00 블랙 코드 Black Code | 89분 | ▲ ■ ◆ ★ △ KSL | TA
13:00 문 밖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 We'll Be Alright | 78분 | ★ KSL | TA
15:00 박근혜정권퇴진행동 옴니버스 프로젝트 '광장' Candle in the Wave | 111분 | ● KSL | TP
17:00 섹스, 설교 그리고 정치 Sex, Sermons and Politics | 71분 | ◆ △ KSL | TP
19:30 폐막식 | 40분
20:10 씨씨에게 자유를! Free CeCe! | 87분 | ▲ KSL

* 지하 다목적홀

11:30 기다림 The Wait | 59분 | ★ △ KSL | TA
13:00 우리는 오늘도 Again Today | 60분 | ● KSL DVS
14:20 피난 Diaspora | 22분 | ● KSL DVS
14:40 있는 존재 Being | 17분 | ● KSL DVS
15:20 핑크워싱 Pinkwashing Exposed: Seattle Fight Back! | 57분 | ▲
16:40 후쿠시마에 남다 Half-Life in Fukushima | 61분 | ★ KSL
18:00 나의 탈출 My Escape | 53분 | ▲ ■ △ KSL

[상영작 정보]

22회 서울인권영화제는 총 23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리고 이 상영작들로 열한 개의 섹션, [맞서다: 마주하다, 저항하다], [협오에 저항하다], [시민을 묻다], [내 몸이 세상과 만날 때], [자본의 톱니], [정보인권-표현의 자유], [투쟁의 파동], [삶의 공간: 지키다], [삶의 공간: 만들다], [삶의 공간: 투쟁하다], [기억과 만나는 기록]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서다: 마주하다, 저항하다], [협오에 저항하다] 두 섹션은 <광장에서 말하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로도 다 전할 수 없는, '불온함'으로 불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불온한 연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이, 계속해서 새로운 불온함을 또, 불온한 연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불온한 '존재'가 불온한 이 '세상'을 바꿀 때까지.

[맞서다: 마주하다, 저항하다]

사람들이 광장을 메우던 그날들, 사이사이에 끼워두었던 이야기들을, '승리의 날' 이후 더 커진 '불온함'으로 마주합니다. 이제 승리했으므로 더는 저항이 필요 없다고, 또 한 번 "가만히 있으라"고, 쏟아지는 말들에 맞섭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이름들을 꼭 쥐고, 다시 광장으로.

박근혜정권퇴진행동 유니버스 프로젝트 '광장' Candle in the Wave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미디어팀 People's Action for Immediat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 한국 Korea | 2017 | 다큐 | 111분 | ● KSL

6.1(목) 19:50 마로니에공원 TA 6.4(일) 15:00 마로니에공원 TP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 광장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수많은 사람과 그곳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가진 우리가 있었다.

영화는 광장의 승리에 얽힌 색색의 실타래를 따라간다. 함께 가다 보면, 우리는 그때와 전혀 다른 광장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광장의 승리가 새로운 광장의 물꼬를 트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http://hrffseoul.org/ko/film/2247>

섹스, 설교 그리고 정치 Sex, Sermons and Politics

오드 슈발리에-보멜 Aude Chevalier-Beaumel, 미카엘 기메네즈 Michael Gimenez | 브라질 Brazil | 2016 | 다큐 | 71분 | ◆ ▲ KSL

6.4(일) 17:00 마로니에공원 TP 6.2(금) 21:00 다목적홀

브라질에선 낙태가 불법이다. 불법 낙태수술을 받던 잔디라는 시체로 발견된다. 그 죽음은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들은 섹스를 출산의 도구로만 여기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에게 맞선다. 앞으로 더 이상의 잔디라를 만들지 않겠다는 변화의 움직임은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부터 시작된다.

<http://hrffseoul.org/ko/film/2232>

[혐오에 저항하다]

나는 여성이고, 트랜스젠더, 흑인, 그렇기에 불온한 존재라 합니다. 나의 불온함이 당신은 불편합니까. 당신은 혐오의 시선으로 나의 일상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혐오 앞에 당당히 저항합니다. 끊임없이 증언하고 연대함으로. 그 시선을 부수고 아직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그 모든 불온함을 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씨씨에게 자유를! Free CeCe!

재클린 (잭) 개리스 Jacqueline (Jac) Gares | 미국 USA | 2016 | 다큐 | 87분 | ▲ KSL
6.3(토) 17:00 마로니에공원 TP 6.4(일) 20:10 마로니에공원

트랜스여성 씨씨는 혐오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위를 들었다. 법정은 그녀의 '피부색'과 '지정성별'에만 주목해, 씨씨를 '살인자 크리스찬'으로 남성 전용 교도소에 가둔다. 씨씨와 연대하고자 어떤 이는 스프레이를, 어떤 이는 메가폰을 들었다. 수많은 씨씨들을 '흑인 남성'으로 규정해 가둬온 혐오, 그 혐오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사람들과 연결돼 씨씨는 자유롭게 춤을 춘다. 이 세상 모든 씨씨에게 자유를!

<http://hrffseoul.org/ko/film/2234>

친밀한 폭력 Intimate Battles

루시아 가하 Lucía Gajá | 스페인 Spain | 2016 | 다큐 | 87분 | ▲ ★ △ KSL
6.3(토) 15:30 마로니에공원 TP 6.2(금) 17:40 다목적홀

평온해 보이기만 하는 수많은 '집' 안에 감춰져 있던 이야기. 그곳엔 파트너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생존자 여성들이 있다. 스페인, 인도, 핀란드, 멕시코, 미국. 살아가는 공간은 서로 멀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는 영화 속에서 만나고 연결된다.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이 있기에 그녀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삶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http://hrffseoul.org/ko/film/2240>

[시민을 묻다]

나는 국가가 원하는 시민이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내 삶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삶의 내용과 무관하게 나는 배치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넘나드는 존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시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국가가 원하는 시민의 모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문 밖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 We'll Be Alright

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 Alexander Kuznetsov | 프랑스 France | 2016 | 다큐 | 78분 | ★ KSL
6.4(일) 13:00 마로니에공원 TA 6.3(토) 14:50 다목적홀

틴스코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 당사자들은 시민으로서 삶을 꾸릴 권리를 박탈당했다. 법원은 탈시설을 '허용'하기 위한 잣대로 당사자들에게 덧셈 뺄셈을 질문하고, 이들의 소매를 걷어 자해 여부를 확인한다. <문 밖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은 울리아와 카짜를 통해 국가가 어떻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박탈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http://hrffseoul.org/ko/film/2230>

기다림 The Wait

에밀 랑발 Emil Langballe | 덴마크 Denmark | 2016 | 다큐 | 59분 | ★ △ KSL

6.3(토) 12:00 다목적홀 6.4(일) 11:30 다목적홀 TA

아프가니스탄에서 덴마크로 도망쳐 온 룩사르의 가족은 망명을 신청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당국의 허가를 초조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간 쌓아온 삶이 일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경찰이 들이닥쳐 가족들을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룩사르의 마음속에는 치유되기 어려운 응어리가 쌓여간다.

<http://hrffseoul.org/ko/film/2228>

핑크워싱 Pinkwashing Exposed: Seattle Fight Back!

딘 스페이드 Dean Spade | 미국 USA | 2015 | 다큐 | 57분 | ▲

6.4(일) 15:20 다목적홀

시애틀 LGBT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애틀 시에서 예정되었던 이스라엘 LGBT 청소년 단체의 행사가 '핑크워싱'이기에 이를 멈추고자 행동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핑크빛 이미지 세탁에 가린 점령과 학살을 드러내는 보이콧은 행사 취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운동은 일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의 행로는 그리 순탄하지 않다.

<http://hrffseoul.org/ko/film/2248>

[내 몸이 세상과 만날 때]

내가 나를 드러내자 세상은 나를 불온하다 합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다고, 혹은 내가 지정 성별과 다른 몸이 되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반대'합니다. 세상은 나와는 사뭇 다른 잣대로 나의 몸을 부르는 듯싶습니다. 왜 내가 불편한 존재여야 할까요. 나는 내가 나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나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Best and Most Beautiful Things

개릿 지브게티스 Garrett Zevgetis | 미국 USA | 2016 | 다큐 | 92분 | ▲ KSL

6.3(토) 12:50 마로니에공원 TA 6.2(금) 14:00 다목적홀

시각장애와 아스퍼거증후군을 가진 미셸은 곧잘 애 취급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 그럼에도 명랑함을 간직한 그녀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보다 강하다. 그녀는 끊임없이 다양한 욕망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며,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BDSM을 실천하며, 성우를 꿈꾸고, LGBT 활동가가 되려는 '나'. 모두 꿈 많은 미셸의 이야기다.

<http://hrffseoul.org/ko/film/2227>

있는 존재 Being

박시우 Park Si-woo | 한국 Korea | 2016 | 다큐 | 17분 | ● KSL DVS

6.3(토) 14:20 마로니에공원 TA 6.4(일) 14:40 다목적홀

김도현에게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 오랜 헤멤 끝에 그는 FTM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만났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자 한다. "자신이 먼저 밀어낸 세상"이었지만 이제 다시 다가가려 한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아닌 당신이 변했으면 해서. 나는 '없는 존재'가 아니기에.

<http://hrffseoul.org/ko/film/2239>

[자본의 틈니]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미국에서 우간다로, 다시 필리핀으로, 한국으로, 기지촌으로 이동합니다. 나는 '자본'입니다. 나를 따라 사람들도 이동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맞물려 돌아가는 자본의 틈니 속 사람들은 가격표가 붙어 이리저리 옮겨집니다. 용감해지고 싶었던,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이들이 그 틈니의 틈새를 뚫고 나오며,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스트 네이션 Host Nation

이고운 Lee Ko-woon | 한국 Korea | 2016 | 다큐 | 91분 | ● ★ KSL

6.2(금) 15:20 마로니에공원 TA

<호스트 네이션>은 기지촌 내 필리핀 이주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필리핀 자국에서 빈곤 문제에 당면해 있는 여성들은 우연한 기회로, 혹은 알음알음으로, 혹은 스카우터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 과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자본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에 고이는지, 그 흐름에 궤를 같이하는 이들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http://hrffseoul.org/ko/film/2243>

가장 값싼 군인을 삽니다 Child Soldier's New Job

마스 일쇠어 Mads Ellesøe | 덴마크 Denmark | 2016 | 다큐 | 69분 | ▲ △ KSL

6.2(금) 13:30 마로니에공원 TA 6.3(토) 13:20 다목적홀

우간다의 모병소 매니저 토마스에게도, 세계 곳곳에 지부를 둔 민간 군수 기업인 이지스에게도, 블랙워터에게도, 전쟁은 돈이 되는 사업장이다. 이들은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예산에 맞는 가장 값싼 군인을 모아야 한다. 어느덧 전쟁은 자본과 맞물려 끝없는 하청의 고리를 낳고 있다. 이 하청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 산업이 되어버린 전쟁은 어떤 사람들을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는가?

<http://hrffseoul.org/ko/film/2226>

[정보인권-표현의 자유]

누군가 나를 감시합니다. 골목마다 설치된 CCTV,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는 스마트폰이 나를 붙잡는 거미줄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순 없습니다. 나의 '정보'도 '인권'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불온한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해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행동합니다.

블랙 코드 Black Code

니콜라 드 평시에 Nicholas de Pencier | 캐나다 Canada | 2016 | 다큐 | 89분 | ▲ ■ ◆ ★ △
KSL

6.4(일) 11:00 마로니에공원 TA 6.1(목) 17:10 다목적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정보'가 '인권'과 바로 맞닿은 지금, 서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블랙 코드>는 전 세계 정부 기관들이 시민들을 시시각각 감찰한다는, 이 공공연한 비밀을 폭로하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와 같은 기술로 정부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http://hrffseoul.org/ko/film/2231>

[투쟁의 파동]

'나'의 이야기로 시작한 투쟁. 팟캐스트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자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투쟁하는 나와 내 삶이 뒤섞이면서, 나와 내 주변은 달라집니다. 동료, 친구, 가족. 투쟁에서 먼 듯 가까운 그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파동의 시작점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함께 흔들리고 일어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었습니다.

플레이온 Play On

변규리 Byun Gyu-ri | 한국 Korea | 2017 | 다큐 | 83분 | ● KSL

6.1(목) 14:30 마로니에공원 TA

SK 브로드밴드의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을 알리기 위해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전파를 타고 컷가로 실려 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평범한

일상을 얻기 위한 과정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이야기가 먼 곳에 있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그 목소리가 남긴 자국들을 따라가 보면, 삶의 한 자락을 차지한 그들의 투쟁을 엿볼 수 있다.

<http://hrffseoul.org/ko/film/2241>

안녕 히어로 Goodbye My Hero

한영희 Han Young-hee | 한국 Korea | 2017 | 다큐 | 107분 | ●

6.1(목) 16:30 마로니에공원 TA

<안녕 히어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파업투쟁과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14살 현우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은 영화다. 현우의 아빠는 현우가 9살이던 2009년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빠는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해고된 노동자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든다. 현우와 현우의 아빠는 과연 바라는 결말을 얻을 수 있을까?

<http://hrffseoul.org/ko/film/2235>

[삶의 공간: 지키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공간이 커져가는 상권으로, 황폐해진 환경으로, 또는 강제 점령으로 점점 예전 모습과 다르게 변해간다고 해도 이곳에 뿌리내린 내 삶은 이 땅,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감으로써 내 삶의 공간과 나의 터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남다 Half-Life in Fukushima

마크 올렉사 Mark Olexa, 프란체스카 스칼리시 Francesca Scalisi | 스위스 Switzerland , 미국 USA | 2016 | 다큐 | 61분 | ★ KSL

6.2(금) 16:00 다목적홀 TA 6.4(일) 16:40 다목적홀

후쿠시마에는 나오토가 꾸린 삶의 터전이 있다. 그가 만들어온 집, 기도를 드리던 바다, 함께 살아온 소와 고양이. 나오토는 다른 공간에서 지속되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후쿠시마에 남았다. 하지만 그런 후쿠시마에는 방사능도 남았다. 후쿠시마에 남은 것과 남지 않은 것, 다시는 남을 수 없는 것 사이 나오토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

<http://hrffseoul.org/ko/film/2244>

이태원 Itaewon

강유가람 Kangyu Garam | 한국 Korea | 2016 | 다큐 | 98분 | ● ▲ KSL

6.2(금) 19:40 마로니에공원 TA

이태원은 언제부터 '이태원'이었고 언제까지 '이태원'일 수 있을까. 살아가는 곳으로서 이태원에서 수십 년의 삶을 보낸 삼숙, 나키, 영희. 이들의 현재는 각자의 과거만큼이나

모두 다르다. 오늘의 이태원도 예전과는 다르다. 삶도, 자본도, 공간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계속될까.

<http://hrffseoul.org/ko/film/2238>

올 리브 올리브 All live Olive

김태일 Kim Tae-il, 주로미 Ju Ro-mi | 한국 Korea | 2016 | 다큐 | 92분 | ■ KSL
6.2(금) 17:30 마로니에공원 TA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억압은 현실 그 자체이다. 자신의 올리브 밭을 통행증을 얻어 출입하는 위즈단 가족, 자신이 살았던 땅에서 '난민'으로 생활하는 핫산, 그리고 일상이 저항이 되어버린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 반복되는 억압과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http://hrffseoul.org/ko/film/2236>

[삶의 공간: 만들다]

나의 집은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집, 마을, 공간, 가족, 친구 그리고 나를 파괴했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것들은 폭탄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기에, 살아남을 것이기에 내가 살아갈 삶의 공간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내가 '외국인'이어서, '난민'이어서 나를 내쫓으려 하지만, 나는 만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공간,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나의 탈출 My Escape

헨릭 그루넷 Henrik Grunnet, 피라스 파이야드 Firas Fayyad | 덴마크 Denmark | 2016 | 다큐 | 53분 | ▲ ■ △ KSL
6.3(토) 11:00 마로니에공원 TA 6.4(일) 18:00 다목적홀

<나의 탈출>은 홀로 유럽으로 탈출한 게이드와 압둘의 셀프 카메라 영상을 담고 있다.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한 이들의 탈출은 쉽지 않다. 경찰에 쫓기며 몸을 숨기고, 철로 위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도착한 그곳에서도 원하는 이와 원하는 공간에서 지내지 못한다. 죽지 않으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시리아에서 탈출했지만, 이들이 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http://hrffseoul.org/ko/film/2245>

피난 Diaspora

셱알마문 Shekh Almamun | 한국 Korea | 2016 | 극 | 22분 | ● KSL DVS
6.3(토) 11:50 마로니에공원 TA 6.4(일) 14:20 다목적홀

자말의 난민 생활은 외롭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순간순간 그는 연락이 닿지 않는 시리아의 가족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난민이 있다. 순영은 한국전쟁 때 가족들과 헤어졌다. 이산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순영은 모든 것을 멈추고 빨려 들어갈 듯하다. 다른 환경 속 맞닿은 삶의 궤적. 자말과 순영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누구일까.

<http://hrffseoul.org/ko/film/2242>

[삶의 공간: 투쟁하다]

오래된 가게가 있던 '자리'가 사라집니다. 매일 새벽 그곳에서 하루를 열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한 장의 문서, 한 통의 전화가 삶을 부수려 합니다. 자본과 권력이 밀물처럼 차오르는 서울 한복판부터 700년 된 네덜란드의 시장까지. 공간을 뺏고 빼앗기고 쫓고 쫓아내는 관계들 속에서, 가장자리로의 추방을 경험한 우리는 연대하며 삶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시장이 있던 자리 The Free Market

마를렌 판데르버르프 Marleine van der Werf | 네덜란드 Netherlands | 2016 | 다큐 | 53분 | ★
△ KSL

6.3(토) 20:00 마로니에공원 TA 6.1(목) 16:00 다목적홀

네덜란드 로테르담시, 700년 전통의 시장에 주상복합 '마켓홀'이 들어선다. 공무원은 시장 규모가 축소되니 상인들에게 마켓홀에 입점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통보한다. 공문 한 장에 상인들은 점포 소유권과, 존재할 권리를 빼앗긴다. 상인들에겐 점포를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이기에 쉽사리 연대하기도 힘들다. 이들의 복잡한 마음을 뒤로한 채 마켓홀은 완공된다.

<http://hrffseoul.org/ko/film/2233>

우리는 오늘도 Again Today

김은석 Kim Eun-seok | 한국 Korea | 2017 | 다큐 | 60분 | ● KSL DVS

6.3(토) 20:50 마로니에공원 TA 6.4(일) 13:00 다목적홀

시장길 정비를 내세워 당선된 국회의원은 마을버스 노선도 없애버린다. 국가 예산이 용역 100여 명을 고용하는 데 쓰인다. 아현동의 포장마차 몇 개와 곱창 가게를 부수기 위해서다. 집행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며 집행관은 구제 절차를 밟으라는 말뿐이다. 그래서 불온한 자들은 법을 가로지른다. 방관자로 '가만히 있으라'는 부조리를 거부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서로의 분노를 확인하며 손을 맞잡는다. 그리고 그들은 벌목당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상을 다시 꾸려간다.

<http://hrffseoul.org/ko/film/2237>

[기억과 만나는 기록]

3년 전의 4월 16일을 모아 오늘의 4월 16일을, 오늘의 4월 16일을 모아 내년의 4월 16일, 십년, 이십년 후의 4월 16일을 만들어 갑니다. 기억의 공간은 기억의 증언이 되어,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과 만나 현재를 이룹니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과 현재를 잇는 기억의 장이 펼쳐집니다.

망각과 기억2: 돌아 봄 Forgetting and Remembering 2 : reflection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4.16act Media Committee | 한국 Korea | 2017 | 다큐 | 198분 | ● KSL
6.3(토) 18:30 다목적홀 TA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를 향해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참사가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2017년인 지금 3년 전의 그 날을 추적하다 보면 새로이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음을 알게 된다. 왜 여전히 세월호인가. <망각과 기억2: 돌아 봄>이다.

<http://hrffseoul.org/ko/film/2246>

기억의 장 A Memory in Three Acts

이나델소 코사 Inadelso Cossa | 모잠비크 Mozambique | 2016 | 다큐 | 65분 | ◆ ★ △ KSL
6.2(금) 19:30 다목적홀 6.3(토) 16:30 다목적홀 TA

포르투갈이 모잠비크를 식민 지배한 시절, 모잠비크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증언과 기억의 장소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감독과 만나 ‘현재’의 부분이 된다. “식민지의 유령”과 “폭력의 기억”이 기억의 증언으로, 폭력의 장소가 “폐허 속 기억”으로, 그 시대를 살던 사람과 현재를 잇는 집단기억이 된다. ‘기억의 세 장’이 지금 우리의 ‘기억의 장’에 펼쳐진다.

<http://hrffseoul.org/ko/film/2229>

[인권영화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인권단체,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영화는 누구나 차별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영화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은 삶,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영화는 사람의 삶이 담겨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인권영화제는 어떠한 검열도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어우러지는 사회,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주장’되고 ‘전달’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서울인권영화제를 합니다.

인권 감수성 확산을 위하여

여러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현장으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를 고민하게 하는 주제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인간을 위한 대안적 영상 발굴을 위하여

‘인간을 위한 영상’을 발굴하는 것도 서울인권영화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상업영화에 치우친 영상문화에 새로운 도전과 자극이 되어,
인간을 위한 영상문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 다른 활동

반딧불 영화제

반딧불은 직접 찾아가는 서울인권영화제입니다.
영화제 폐막 후, 하반기에는 ‘반딧불’ 사업에 집중합니다.
지역으로 찾아가고 공동체 상영회도 기획합니다.

화기애애

인권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라!
인권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열리는 정기상영회입니다.
그 시기에 다시 주목할 만한 지난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을 재상영합니다.

올림

올림은 영화제를 기다리는 관객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고자 격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서울인권영화제 뉴스레터(소식지)입니다. 올림은 서울인권영화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신청: hrrfseoul@gmail.com)

상영지원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작품을 다시 보기,
못 본 사람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기
서울인권영화제는 지역, 공동체, 단체에 인권영화 상영회를 제안합니다.
이웃/활동가/후원활동가들과 함께 보는 인권영화 상영회가 지역운동, 공동체, 단체 활동에
에너지를 불어 넣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배급권으로 인하여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던 모든 작품을 상영지원 하기는 어렵지만,
인권영화로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상영지원 가능 작품 목록 문의: hrrfseoul@gmail.com)

[장애인접근권]

장애인 접근권은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된 기존의 상영관들과는 다르게, 장애인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수화/문자통역, 화면해설, 점자 책, 활동 보조뿐만 아니라 영화가 상영되는 무대와 관객석 또한, 휠체어 등의 접근성을 고민합니다.

자막

비-한국어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어 작품에도 한글 자막을 넣어 상영합니다.

수화통역/문자통역/화면해설

관객과의 대화(TA), 광장에서 말하다(TP)와 개막식, 폐막식에서는 문자통역과 수화통역을 모두 진행합니다. 20회부터는 수화통역을 포함하여 상영하고 있으며, 22회부터는 일부 작품에 개방형 화면해설을 포함하여 상영하고 있습니다.

점자 리플렛

점자로 된 영화제 리플렛을 제작합니다.

영화제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동 보조

활동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화제로 연락하여 주세요.

[서울인권영화제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기업·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는 이유

인권운동으로서 서울인권영화제는, 기업과 정부의 후원을 비롯한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재정 자립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울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동을 탄실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료상영의 원칙

'누구나' 인권영화를 볼 수 있도록, 서울인권영화제에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영화를 함께 보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은 후원을 해 주세요. 서울인권영화제를 계속 이어가, 더 많은 사람이 인권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함께해요!

그럼, 재정은?

개인후원활동가(총 316 여 명, 2017년 5월 현재)와 비영리 목적의 기금으로
서울인권영화제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그 외 후원활동가들의 싹짓돈 기부가 있으며,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영화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활동가 되기!

<https://goo.gl/l5rFPw> (지정단체명: 서울인권영화제)
www.hrffseoul.org/donate

‘소셜펀치’에서도 후원할 수 있어요! (6/30 까지)

<https://goo.gl/cs0KI2>
www.socialfunch.org/22ndhrffseoul

통장입금으로 후원하기!

(국민) 746301-00-001515 서울인권영화제